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도자료
2021. 3. 15.(월)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이준엽

서울강서 · 영등포 · 금천
구로 · 양천경찰서

전화 02-3219-4420
팩스 02-3219-2397

제 목

서울남부지역 검·경 기관장 회의 개최
- 최초로 검·경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,
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 등 함께 엄정 대응하기로 -

-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(강서·영등포·금천·구로·양천)는 금일(3. 15.) 「서울남부지역 검·경 기관장 회의」를 개최하였음
 - 오늘 회의에는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장이 참석하여 ①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서울남부지역 검·경 협력체계 구축 등 수사협력 증진 방안, ② 경찰과 중요 사건 수사 협력을 담당하는 ‘수사협력 전담 부서’ 지정 방안, ③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음
- 회의 결과,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는 ▲ 검·경 협력체계(기관장급, 실무자급)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▲ 검찰 내 지정될 ‘수사협력 전담부서’를 통해 중요 사건의 초동 단계부터 수사협력을 수행하는 등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 - ※ 지역 단위의 검·경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사례임
 -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검찰 전담부서 및 경찰 전담수사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련 사건 발생 및 영장 신청 단계부터 신속한 유선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하였음
-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는 향후에도 상호 역할 존중에 기반한 「새로운 검·경 협력 모델」을 구축하여 형사 사범의 정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

1

개최 배경

-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한 **인권보장의 이념**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할 책무 부담
- 최근 발생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**검·경이 긴밀하게 공조** 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

2

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3. 15.(월) 14시, 서울남부지검 본관 2층 중회의실
- 참석자
 - 검찰 : 검사장, 1·2차장검사
 - 경찰 : 5개 경찰관서(강서·영등포·금천·구로·양천) 각 경찰서장

3

주요 논의 내용

① 서울남부지역 검·경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

- 전국 최초로 지역 단위 검·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내지 2회로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, 기관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의 **투 트랙(Two Track)**으로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 논의

서울남부지역 검·경 기관장 회의	서울남부지역 검·경 실무자 회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檢) 검사장(차장검사 배석) ▶ (警) 관내 5개 경찰관서 경찰서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檢) 전담 부장검사 ▶ (警) 관내 5개 경찰관서 수사과장

- ▶ 운영 계획안
 - 연 1회 또는 2회 정기 개최, 일방의 요청 및 합의한 경우 수시 개최
 - 논의 안건 : ① 국민의 인권보호, 수사의 신속성·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, ② 기타 수사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등

② 수사협력 전담 부서 지정

- 중요 사건에 관하여 초동 단계부터 상호 수사협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, 서울남부지검 내 '수사협력 전담부서'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영장 전담부서와 함께 상시적 소통 창구로서 역할 수행

③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처

-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검·경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엄단 방안 논의

- ▶ 경찰 전담수사팀, 검찰 전담부서 간 상시 핫라인 구축
- ▶ 관련 사건 발생 및 영장 신청 단계부터 신속한 유선 협의 진행
- ▶ 중요 판례 및 법률 적용 시 유의사항 공유 등 협조 강화

4

향후 계획

-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역 5개 경찰서는 향후에도 상호 역할 존중에 기반한 「새로운 검·경 협력 모델」을 구축하여 형사 사범의 정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